



ISSN 1599-7863

2012년 가을 39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
사립
관
들

Cover Story



금관

경주 교동, 높이 12.8cm, 국립경주박물관

금관은 초기 형태로 관테의 세움장식 세 개가 단순한 나무 모양이다.
작고 양증맞은 이 금관은 직경이 14cm인 소아용으로 추측된다.

Contents

책을 만들면서..

2012년 가을 39호

기획 | 금관

- 04 금빛 세상을 열다
- 08 금관에 감추어진 상징성
- 12 고대인의 선물-관모·관꾸미개

문화칼럼

- 16 마야문명, 그 다름의 아름다움

전시실 산책

- 20 해후, 그리고 긴 이별

회원마당

- 22 다양한 군상, 정교한 표현 - 김홍도 풍속화
- 24 바람에 끌리다

학술상

- 27 백제 은화관식의 제작방식에 대한 일검토

박물관회 소식

- 32 박물관 특설강좌 - 그 화려한 외출

숨은전시 찾아보기

- 34 서화관 서예실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깊이 있는 미소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보고 또 보고픈... (水)

습기 머금은 바람을 헤치고
용눈이 오름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다... (河)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위를 보고싶다
이 청량한 가을에... (愛)

소낙비 퍼붓는 경주 들판
비 끝에 떠오른 무지개따라
금빛 날개가 반짝인다... (리)

금관만 바라다 보니
세상이 온통 황금빛이다
그렇게 여름이 갔다... (정)

20여년의 묵은 세월을
무더위에 툭툭 털고
산뜻하게 다음 막으로
넘어간다... (藝)

별써,
시리게 푸른
겨울을 기다려 본다... (延)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2년 09월 20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김정태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예경·최예정·하영남
진행 | 서승연
디자인 | theimageworks, (02)2268-5305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금빛 세상을 열다

글 정미희 _ 편집회원

금관 앞에 서자 한줄기 바람이 다가온다. 그 바람은 전시실 유리관을 가볍게 넘는다. 언뜻 금관을 쓴 왕의 모습이 보인다. 다시 한 번 위상을 드러내려는지 강인한 눈빛이다. 왕의 고갯짓에 관의 장식 줄기가 살짝 움직인다. 연이어 비취빛 곡옥이 흔들리고, 나뭇가지장식과 관테에 달린 수백 개의 달개[瓔珞]도 일제히 반짝인다. 금관을 쓰고 금 허리띠를 두르고 금빛 칼을 찬 왕은 찬란하고 눈부시다.

— 전 세계를 통틀어 10여 개에 불과한 고대 금관 중 6개가 경주에 있다. 신라 왕릉에서 다섯 개의 금관과 교동 고분에서 한 개가 출토되었다. 가야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금관까지 포함하면 거의가 우리나라 것이라는데, 정말 이지 놀라운 따름이다. 그야말로 금관의 나라이다. 일제 강점기 우연한 계기로 발굴한 금관총을 시작으로 서봉총, 금령총에서 금관이 출토되었다. 당시 조사는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 중요한 정보를 잃는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 손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는 1973년 천마총을 발굴하면서부터이다. 이 무덤과 이어서 발굴한 황남대총에서 금관과 함께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신라의 고분 중 일부만 발굴되었으니 아마도 나머지 무덤 안에는 훨씬 많은 금관이 묻혀있을 것이다.

— 금관이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일까. 박·석·김이 교대로 통치하던 신라가 김씨 체제로 들어선 때로 본다. 왕호를 마립간이라 부르던 시기이다. 17대 내물 마립간부터 재위 중 ‘왕’으로 왕호를 바꾼 22대 지증왕까지이다. 마립간 초기에는 국내외 정세가 불안했다. 미약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자신을 드러낼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금관의 출현도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까. 5~6세기는 황금문화가 꽃피던 시기이다. 마립간과 그 일족들이 묻힌 돌무지덧널



무덤의 화려한 금관과 갖가지 부장품에서 확실히 보여준다. 어쩌면 거대한 무덤들도 나라 안팎에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는데 한 몫 했을 것이다. 실제로 내물왕 26년 신라사신 위두가 前秦 왕 부견 앞에서 ‘한반도의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성장한 신라의 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으리라. 하지만 5세기 중엽까지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 하에 있었다. 내물왕 45년 신라의 요청으로 광개토왕이 군사를 보내 가야와 왜를 물리친 사건도 있었다. 그후로는 조공을 바치고 왕족을 볼모로 보내야만 했다. 부장품속에서 고구려 토기, 은합이 발견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 출토 은관을 보면 깃털이 있는 고구려 꾸미개와 유사하다. 일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금관은 마립간만 쓸 수 있었던 것일까. 신라 무덤 중 가장 큰 황남대총은 북쪽무덤이 남쪽무덤에 잇대어져 있다. 쌍분으로 남분이 먼저 만들어졌다. 북분의 내부에서 ‘夫人帶’라는 글자가 새겨진 허리띠 장식이 출토되어 왕비의 무덤임을 짐작케 한다. 이곳에서 금관이 피장자의 머리에 씌워진 채 출토되었다. 오히려 왕의 무덤인 남분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금관은 없고 금동관이 나왔다. 왕보다 왕비의 신분은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까. 금령총 또한 출토 유물의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 무덤주인은 왕자로 추정된다. 금동관이나 귀걸이, 팔찌 등 각종 금 장신구는 왕족뿐만 아니라 귀족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금관과 금 허리띠는 왕과 왕비, 왕족만이 제한적으로 소유한 것 같다.

금동금관은 초기 금관의 단순한 나무모습이다. 직경이 14cm로 작고 양증맞다. 관테에 나뭇가지모양 세움장식이 세 개 있다. 줄기와 맞가지는 마치 만세를 외치는 어린아이 같다. 금관은 세움장식의 모양 때문에 ‘나뭇가지모양 대관’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나무형태에서 줄기는 곧고 맞가지는 직각인 형태로 변해간다. 이후 맞가지 세 개에 엇가지 두 개가 더하여져 정형화된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금동관 6개가 출토되었는데 초기금관의 변천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남분의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던 금동관은 세움장식이 맞가지모양뿐인데 직각으로 꺾여 있어 정형화되기 전 단계이다. 출토된 금동관 중 유일하게 곡옥이 달려있다. 형식의 완성은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이다. 가장 잘 다듬어진 형태이다. 신화 속 김알지가 계림의 나뭇가지에 걸린 황금궤짝에서 나와서 일까? 금관의 세움장식은 숲속의 신성한 나뭇가지를, 거기에 달린 무수한 곡옥과 금장식들은 열매 · 나뭇잎을 나타내며 생명을 상징한다.



- 01. 금관, 황남대총 북분, 높이 27.3cm, 국보 131호, 국립경주박물관
- 02. 황남대총 북분 발굴장면
- 03. 은관, 황남대총 남분, 높이 17.2cm, 보물 631호, 국립경주박물관 (9쪽 사진 05 참조)

04. 금동관, 경산 임당 7A호묘, 높이 22cm, 영남대학교

05. 흑갈유소병, 황남대총 북분, 국립경주박물관

06. 은합, 서봉총

07. 08. 금관의 부분, 서봉총



04

금관이 발견된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 ‘총’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정확한 기록과 사료가 없어 알 수 없다. 호우총 청동합이나 서봉총 은합, 황남대총 북분 흑갈유소병에서 연대를 추론하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하다. 서봉총은 은합의 명문과 새장식으로 지증왕의 어머니 조생부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것의 다른 의견으로 명문에 기록된 ‘延壽’의 연호를 高昌國 麴文泰왕으로 새롭게 밝혔는데, 추론 결과 서봉총의 주인을 진평왕(579~632)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봉총 금관은 어떤 모습일까. 경주박물관으로 가보자. 금관은 다른 유물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에 우뚝 빛나고 있다. 금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의전용 관이다. 따라서 특별한 의식 때 썼을 것이다. 금관의 무게는 1kg 남짓하다. 세움장식은 1mm 정도의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졌다. 세움장식과 관테에 일정하게 볼록 튀어 나온 부분이 많이 있다. 안쪽을 유심히 보면 그 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단하게 하기 위해 두드려 만든 것이다. 거기에 곡옥과 달개가 걸린다. 서봉총의 금관은 다른 것과 비슷하나 독특한 부분이 있다. 금테 안쪽으로 십자형 덮개가 있고 정수리의 황금가지에 세 마리의 새가 있다. 꼬리를 하늘로 치켜든 모양새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다. 그래서인가, 새 옆구리에 달린 달개 하나가 바르르 긴장한 듯 흔들린다. 어쩌면 이 새들은 살아서 주인을 지키고, 죽은 주인을 위해서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흰빛 도는 투명한 곡옥과 달개들의 금빛 떨림은 바라만 봐도 황홀하다. 금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금테 양쪽으로 내려뜨린 드리개이다. 역시 최고의 세공기술이 녹아있다.

6



05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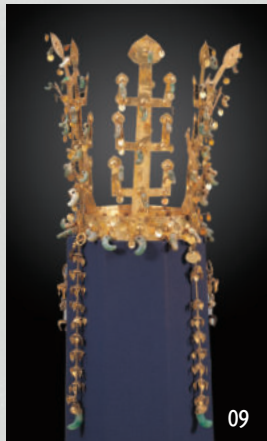
마립간 시기는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도로망과 시장을 설치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로 비상한다. 마립간들은 금이라는 성이 말해 주듯이 황금을 사랑했다. 반짝이는 황금치장은 국내외적으로 그들의 위상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쓴 금관의 형태는 세계 어느 고대국가에서도 볼 수 없다. 신라가 유일하다. 마음껏 자랑해도 넘치지 않는다. 우리를 매료시킨 신비롭고 독창적인 금관은 해외에서도 찬사가 이어졌다. 신라인의 황금사랑은 화려하고 섬세한 장신구문화를 낳고 금세공 기술을 발달시켰다. 그 자부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재창조로 이어져 찬란한 황금문화를 꽃피게 하였으리라. 독보적인 금관은 바로 그 결정체이다. 그들의 거침없는 금빛질주는 눈부셨다. 🌺

09. 금관, 금관총, 높이 27.5cm, 국보 87호,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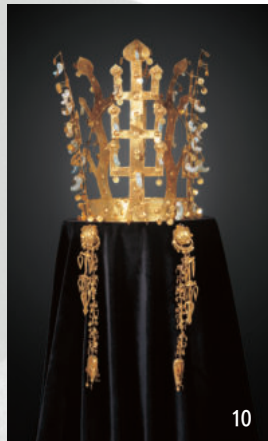
10. 금관, 서봉총, 높이 30.7cm, 보물 339호, 국립중앙박물관

11. 금관, 금령총, 높이 27cm, 보물 338호,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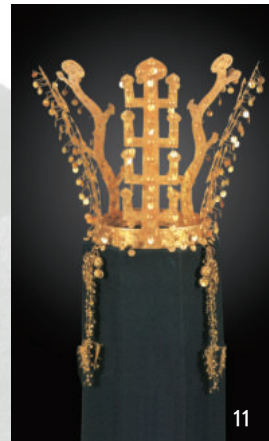
12. 금관, 천마총, 높이 32.5cm, 국보 188호,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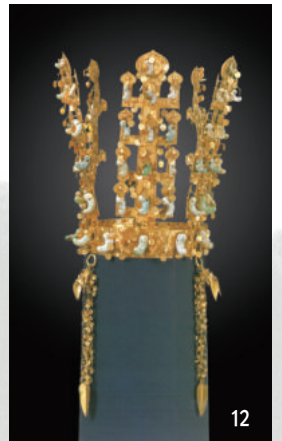
09



10



11



12

7



금관에 감추어진 상징성

글 김병모 _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박물관에서 신라금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화려한지, 왜 나무모양이나 순록의 뿔모양으로 장식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금을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역사가 陳壽가 쓴 『三國志』를 보면 한반도에 살았던 韓인들의 취향에 대하여 ‘그들은 구슬을 제일의 보배로 삼는다. 그래서 구슬을 옷에 매달아 장식을 삼는다. 금은이나 비단 같은 것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이라는 나라는 서기 1-3세기

쯤에 오늘날 한반도 서남쪽,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곳에 살던 농경인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통치체제가 국가 형태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국력이 중앙의 왕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금관 같은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은 듯 합니다.

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후 삼국시대인 서기 4세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족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금으로 장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슬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취향이 바뀌어서 구슬 대신 금으로 장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도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한반도로 이주해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는 춘추전국시대부터 중국대륙에 몰아치던 대규모 전쟁들이 아주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백 년 간 계속되던 전쟁이 궁극적으로 진나라로 통일되면서 일단락되었지만(서기전 3세기 말) 곧이어 漢나라가 다시 중국대륙의 패권을 잡는 전쟁이 처절하게 펼쳐집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전쟁의 결과는 수많은 이민을 발생시켰고 그 이민의 한 자락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지에 辰韓(나중에 신라로 발전) 사람들은 원래 중국의 秦나라에서 노역을 피하여 이주해온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시아에는 알타이지방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서쪽에는 스키타이라는 민족이 살았고 동쪽에는 흉노족이 살았습니다. 스키타이족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등장하는 유목민으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지방에 살면서 그리스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 금으로 된 그릇이나 장신구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금제 관을 남기지는 않았고 약 서기전 3세기, 중국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할 때쯤에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방으로 옮겨오고 나서 여러 가지 금제 장신구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죽모자에 금으로 만든 핀과 가죽 상의에 단추모양의 금제 장신구를 수백 개나 붙인 의복 등이 있습니다. 알타이산맥의 서남쪽인 천산산맥 서쪽 끝자락, 오늘날 카자흐스탄 이썩지방에서 금인(Golden Man)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 금인은 서기전 3세기 때 만들어진 스키타이족 고분군(Kurgans) 속에 있었습니다. 금인은 금으로 만든 사람아 아니라 금제 장식으로 뒤덮인 가죽 상의(Tunic)를 입고 금제 화살, 창 등의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솟대 비슷한 나무 위에 새가 앉아있는 장식을 한 가죽 고깔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03

금관을 만든 사람들

스키타이족과 흉노족이 남긴 금제 모자의 나무와 새를 기초로 한 디자인은 아프카니스탄 툴리아 테페(Tillya Tepe)에서 발굴된 서기 1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박트리아 왕국 때의 금관에서 보입니다.¹⁾ 이곳의 6호 고분에서 발견된 금관은 이마를 둘러싸는 대륜과 대륜에서 위로 치솟는 나무 모양의 立飾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륜과 입식에는 장미나무의 잎과 꽃이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머리를 하늘로 치켜든 새 2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금관의 주인공은 20대 여성으로 판명되었고 주변에서 함께 발견된 다른 여성의 장신구와 비교해서 훨씬 화려하여 6호 고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금관과 함께 발견된 금제 장신구에는 그리스신화의 주인공인 디오니소스(Dionysus)와 아리아드네(Ariadne)가 새겨져 있어서 그리스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여인의 입과 손에는 파르티아(BC 247 ~ AD 226) 시기에 사용된 동전이 있어서 이 여인의 종족적인 원류를 알 수 있습니다. 파르티아는 스키타이 계통의 사카(Saka) 족이 세운 나라였고 종족적으로는 아리아 계통의 서양인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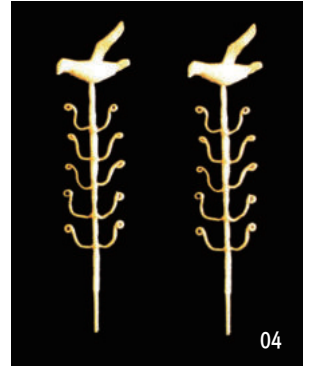
한편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중국인들에게 항상 골칫거리를 제공하던 민족이 흉노족이었습니다. 중국 북쪽에 살던 흉노족도 금으로 만든 모자가 관의 기본구조인 대륜을 갖추고 있었고 머리 정수리부분에 올려놓는 장식으로 날개를 활짝 핀 금제 독수리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흉노는 오늘날 몽고에서 타클라마칸 사막 사이의 넓은 지역을 말 타고 이동하며 살던 유목민족입니다. 종족적으로는 몽골인종 즉 아시아계 사람들이고 그들의 언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합니다. 알타이 어족은 한국어도 속하는 세계에서 54개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알타이는 오늘날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4개국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의 이름이자 그 주변의 동서로 뻗는 1400km나 되는 산맥의 이름입니다. 그 산맥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廣義의 알타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타이라는 말은 원래 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타이 산을 중국어로는 金山이라고 표기합니다. 알타이 산과 그 주변지방에는 유명한 금광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채광하는 금의 90%가 러시아령 알타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금관 속의 암호

이썩지방 스키타이족 모자에 장식된 금제 편이 나무와 새, 박트리아의 장미나무와 새, 노인올라의 흉노 모자 장식의 금제 새들은 그들의 조상신화에 새가 있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한국의 신라 금관에 보이는 나무와 새들은 이 모든 민족들 간의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고 어쩌면 민족적인 관련성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부정할 수가 없게 합니다. 신라금관에 나타난 나무와 순록의 뿔모양은 신라인의 종족적인 토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숭배 민족과 순록 숭배 민족이 합쳐서 탄생한 주인공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나무는 바이칼을

1) The British Museum, 『AFGHANISTAN』, Crossroad of the Ancient World, 2011.

- 01. 금관, 서봉총, 높이 30.7cm, 보물 339호, 국립중앙박물관
- 02. 아프카니스탄 금관, Tillya Tepe, 박트리아 시대
- 03. 나주 금동관, 높이 25.5cm, 국보 295호, 국립중앙박물관
- 04. 금제 모자 핀 장식, 카자흐스탄 이썩지방
- 05. 금제 관 장식, 내몽고 노인올라



중심으로 살았던 사냥꾼들의 사유세계이고 순록은 북쪽의 툰드라 지대에서 유목하던 민족을 뜻합니다. 그들이 합쳐져서 신라인이 되었다는 암시입니다. 신라금관에서 보이는 나뭇가지의 段數는 이썩지방 스키타이족의 모자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도자(샤만)로서의 족보를 뜻하고, 신라 김씨 麻立干들의 왕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견된 금관이나 금동관의 나무장식들은 신라의 여러 단의 가지가 달린 높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나주의 금동관처럼 얇은 나무도 있어서 주인공들의 종족적인 원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이상하게도 중국어와 가깝지 않고 흉노족들이 사용하던 알타이어에 속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민족구성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옛날 신라어에서 유래한 것이고 신라금관을 만든 사람들이 스키타이 또는 흉노식 디자인을 채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 하고 있는 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하는 의문의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



古代人の 선물 - 관모·관꾸미개



01

글 정혜리 _ 편집회원

기나긴 의식이 끝났다. 무덤의 문이 닫히고 왕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 어디선가 황금색 빛이 반짝인다. 왕의 영혼을 모셔갈 새가 날개를 저으며 준비를 한다. 떠날 시간이다. 황금날개를 펼리며 힘껏 비상한다.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어두운 하늘을 한 바퀴 돌아 이승의 아쉬움을 떨치는 듯, 수많은 달개들이 소리를 내며 운다.

_ 인류가 머리에 무엇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이다. 추위와 자연환경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자 나무껍질이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썼다. 농경이 시작되고 계급이 형성되자 고대인들은 모자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 冠과 帽를 치장한 장식들은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고, 사후세계에서도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길 기원하며 무덤에 넣기도 하였다.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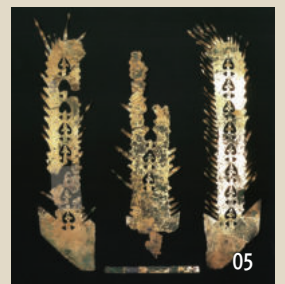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농경문청동기」에는 한 남자가 새의 긴 깃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발을 갈고 있다. 고구려 쌍용총 벽화에서도 折風형의 모자를 쓰고 말을 탄다. 절풍은 ‘바람을 가르다’의 의미로 고깔 형태의 모습이며 새 깃을 꽂기도 했다. 옛사람들에게 새는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며 영혼의 여정을 돕는 靈物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모자에 새 깃으로 장식하고 무덤에도 넣어 영혼 길의 동반자로 삼았다. 5~6세기 것으로 보이는 금동 「깃털모양 관꾸미개」는 날개를 크게 달고 금 깃털을 살짝 꼬아 날아가는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날개 안에는 세잎무늬[三葉文]를 맞새김[透刻]하여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장식을 돋보이게 했다. 꾸미개를 모자에 꽂고 말을 타던 고구려의 장수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빠르게 날았을 것이다. 새를 직접 형상화 시켜 장식도 하였다. 「봉황모양 꾸미개」는 꼭 관모에 꽂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신분을 의미한다. 봉황보다 더 숭고한 새가 어디 있느냐. 봉황의 머리를 장식한 꽃봉오리는 신라의 금관에서도 볼 수 있다.

고대인에게 樹木은 새처럼 신성한 의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神檀樹 아래서 神市를 열었고, 신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곳도 계림의 숲 속이다. 숲은 대지를 감싸고 있다. 대지에 뿌리를 둔 나무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는다. 가지에 많은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는 곧 생명이다. 고구려의 「산모양 관꾸미개」나 三神山 모양의 백제 「관꾸미개」를 보면 숲은 승배의 대상이다. 「산모양 관꾸미개」는 세 개의 봉우리 안에 세잎무늬가 들어 있다. 세잎무늬 위의 산은 울창한 산림이다. 깊은 산속, 어찌면 그곳은 왕이 태어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인지도 모른다. 백제의 「관꾸미개」에는 신선이 살고 있다. 신선이 사는 곳은 훨씬 여유롭고 신비하다. 산을 관장식으로 달았다는 것은 자신을 신선처럼 신성화 시킨 것이다. 백제 泗泚시기에 여러 형태의 銀製 「관꾸미개」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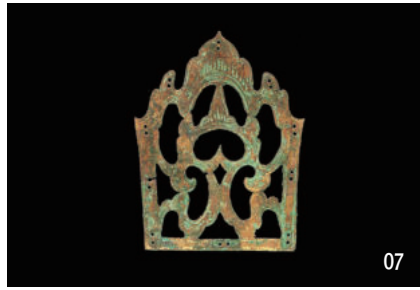
- 01. 관꾸미개, 금, 황남대총 남분, 보물 630호, 국립경주박물관
- 02. 농경문 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
- 03. 말탄 사람이 그려진 벽화편, 고구려, 쌍용총
- 04. 봉황무늬 꾸미개, 금동, 고구려, 용호동 무덤
- 05. 깃털모양 관꾸미개, 금동, 고구려



04



05



중앙 줄기에 좌우 대칭인 가지와 가지 끝의 꽃봉오리로 구성되었다. 생명의 근원이 한 송이의 꽃으로 결실을 맺었다. 유려하게 휘어진 가지 위에 달린 꽃봉오리가 앙증맞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에 금꽃으로 장식하였고 6품 나솔 이상의 관리들은 은꽃으로 장식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작은 장식 하나라도 철저히 계급적 제약을 두었다.

— 불꽃같은 강렬함을 나타낸 장식도 있다. 평양 진파리 무덤에서 출토된 「맞새김꾸미개」는 삼족烏를 중앙에놓고 불꽃이 뜨겁게 일어난다. 바람을 타고 무섭게 타오른다. 군주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전율이 느껴진다. 감히 나와 대적할 자가 있던 말인가. 같은 불꽃무늬지만 무녕왕릉 출토 왕·왕비 「관꾸미개」에선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무서움은 없다. 부처의 광배라고 할까, 생명의 원천인 나무라고 할까. 마주하는 순간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왕의 「관꾸미개」는 자유스럽고 역동적이며 좌우대칭을 자연스럽게 변형 시켰다. 위로 타오르는 불꽃은 강렬한 힘을 가졌지만 많은 백성을 보듬고 가야하는 왕의 힘든 어깨이기도 하다. 줄기 사이사이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달개들은 수줍게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나 흔들릴 때 마다 왕의 고뇌는 깊어졌을 것이다. 그에 비해 왕비의 「관꾸미개」는 단아하다. 흔들리지 않는 불꽃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 가끔 유물을 볼 때 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저 유물들을 고대인들이 사용했을까, 사용했다면 너무 무겁지 않았을까, 모서리에 찢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신라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모」와 황남대총의 새모양 「관꾸미개」를 보는 순간 사라졌다. 섬세하고 신기에 가까운 금세공 기술에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천마총 「금관모」는 각기 모양이 다른 얇은 금판 4개를 이어 만들었으며 금판마다 촘촘히 투각하였다. 윗 단에는 눈썹 모양의 곡선으로 뚫어 장식하고 사이사이에 다시 작은 구멍을 뚫었다. 남은 부분에도 빼곡히 점무늬를 찍었다. 그 밑에는 구름무늬를 투각하고 구름 위에도 빈틈없이 점으로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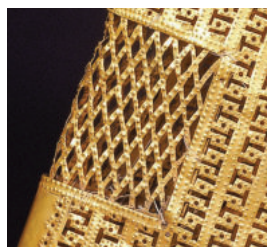




메꾸었다. 마지막으로 T자형의 투각과 가는 금판을 마름모꼴로 겹쳐 창살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다. 머리속에는 금빛 창살만이 가득하고 이런 멋진 예술품을 남긴 우리의 조상들에게 무한한 존경심이 들었다. 몇 년 전 경주 황룡사 터를 둘러볼 때, 홀연히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멀리서 날아왔다. 천천히 날아오는 그 새를 무엇에 홀린 듯 쳐다보았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넓은 대지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황남대총 출토의 새모양 「관꾸미개」를 보자 그 새가 떠올랐다. 왕은 새에 영혼을 담아 떠났겠지. 새처럼 품위 있고 위엄있는 왕이었으리라. 살아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죽어서 천상에 올라 자애로운 눈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고대인들은 훌륭한 예술품을 남겼고 많은 의문들도 함께 남겼다. 생전에 사용했는지, 문양들은 어떤 의미인지, 돌연 금 문화는 왜 사라졌는지 등의 모든 의문들은 학자들의 몫이다. 무령왕릉의 화려한 꽃모양 장식을 고구려 「불꽃맞새김무늬관」에서 발견했을 때는 놀라웠다. 「산모양꾸미개」에서 천마총 관모장식 T자형과 마름모 투각을 찾았을 때는 즐겁고 흥분되었다. 우리들은 유물을 보며 커다란 행복감을 느끼면 된다. 이것이 고대인이 준 선물이다. 🍷

- 06. 산모양 관꾸미개, 금동, 고구려
- 07. 관꾸미개, 금동, 백제, 능산리 무덤
- 08. 맞새김무늬 꾸미개, 금동, 고구려, 진파리 무덤
- 09. 관꾸미개, 은, 백제
- 10. 관꾸미개(왕, 왕비), 금, 백제, 무령왕릉, 국보 154호·155호
- 11. 관모, 천마총, 금, 국보 189호, 국립경주박물관



마야문명, 그 다름의 아름다움



01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폭넓은 다양성이 우리의 주변을 채워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글 송영복 _ 경희대학교 교수

하루가 다르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서울의 도심에서 외국인을 접하게 되는 일도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도 문화적 변화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인류가 가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나 개성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간단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도 요구되며 시간도 오래 걸리는 힘든 과정이다. 따라서 마야문명을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특이하게 느껴져서 신비하다거나 이상하다고 표현되는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문화는 사실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가 가진 다양성 속에서 재미있게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마야문명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인류의 발달 과정을 따르고 있지 않다. 물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마야문명을

16

포함하고 있는 메소아메리카(Mesoamérica) 문화는 오아하까(Oaxaca)와 따라스코(Tarrasco) 지역 등에서 높은 수준의 야금술을 발달시켰다. 또한 남미의 안데스문명은 황금의 문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장신구를 만드는 수준에만 머물렀다. 그 이상의 매력적인 것은 못되었던 것 같다. 최소한 동서양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 금속이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농기구와 무기 등의 발명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메리카 문명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기존에 이들이 사용했던 석기에 비하여 다루기 쉽고 강하고 튼튼한 금속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마야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드는데에만 전념하였다. 금속도구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농사가 가능하고, 더 많은 수확을 얻어 부유하게 되는 것에 큰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아니 집착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면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여 더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는 우리가 지향하는 일반적인 가치 지향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나를 공격해 오는 외부 집단을 방어해 내는 데에 금속물질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동서양과 같이 그렇게 전쟁에 모든 정열을 바치지 않았다. 적군을 막기 위한 중세시대의 성곽이 유럽 구석구석의 진풍경으로 남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도시와 산지에 방어용 성곽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동서양에는 전쟁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들이 흔하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수만에서 수십만명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도시들에 변변한 방어시설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도대체 마야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면 어디에 그 정열을 다 쏟아 부었던 말인가?

— ‘다양성의 이해’라는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같은 금속물질의 발견에 대한 결과가 지역과 문화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그저 “저 사람들과 우리들은 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이상하다는 것을 ‘원시적이다’ 혹은 ‘후진적이다’라는 말로 폄하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야 사람들은 바퀴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잘 만들어진 포장도로 시스템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편한 바퀴의 원리를 고작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모든 짐들은 끈으로 묶어서 이마에 걸어 운반하였다. 수백 수천 킬로에 달하는 물물교환의 증거를 부정하는 학자는 없다. 분명 더 효율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퀴를 이용하던 어떠한 운반시설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그림의 미학을 떠올리게 하며 오늘날 우리가 ‘마야문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어디 이뿐인가. 많은 인류가 10진법을 사용하지만 10진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마야 사람들이 고안·발전시킨 20진법은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모두 벗겨지지 않은 마야의 천문학 발달을 가능케 했다. 태양과 달의 공전과 자전주기를 그 어떤 다른 문명보다도 정확히 계산해냈고, 각종 행성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고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기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현상을 예측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로 발달된 다양한 달력 시스템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농사를 많이 지어 부자가 되거나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여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는 것보다 하늘을 보고 천체를 관측하며 달력을 계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다.

비록 좋은 직장을 다니며 훌륭한 차를 몰고 넓은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산골땅에 농사를 지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흙길을 걷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더 넓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야의 ‘비정상적인’ 농사도구의 낙후와 기타 동서양 문명과 다른 물질적인 추구의 결핍, 그리고 천문학의 발달이라는 ‘비상식적인’ 집착을 어렵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마야의 도자기는 1500년대 유럽의 도자기와 조우하면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동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의 생활용기가 토기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토기는 단단함, 윤기, 방수효과 등과 함께 예술성 면에서도 당시 최고를 자랑하던 동양의 도자기나 유럽의 도자기와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불편하고 잘 깨지기도 하며 촌스럽고 곱면은 거칠거칠한 도자기를 아직까지도 일상의 생활용구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동서양의 도자기가 주는 편리함과 깔끔함 그리고 효율성 등이 그렇게 눈에 차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인간들이 더 단단하고 가볍고 화려한 도자기를 선호한다는 고정관념은 세상의 모든 문화는 참으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위에 소개한 마야문명의 재미있는 특징들을 보통 ‘신비’나 ‘수수께끼’와 같은 말로 표현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문화를 신비롭고 불가사의하며 특이하다고 접근하는 자체가 오만일 수 있다.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을 꿈꾸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다름은



나름의 긍정적인 면과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집단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다름은 우리 자신의 상상력을 넓혀주고, 우리도 모르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귀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석기 다음에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가 온다는 생각은 다문화시대에 반하는 반세계화이기도 하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폭압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비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와는 달라서 이상하게까지 느껴지는 마야문화의 근간을 그들의 시선과 정서로 이해하려고 접근해 보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교양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인류 공존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01. 고대 아메리카 대륙의 발달한 금속공예
- 02. 고대마야의 전통책(20진법으로 만든 숫자와 달력)
- 03. 바퀴가 달린 장난감 유물, 멕시코국립박물관
- 04. 식베(Sacbe, 마야의 도로)
- 05. 06. 멕시코 토기

해후, 그리고 긴 이별

글 문정원_회원



‘고향을 떠난다. 구한말 조선왕실을 내한한 외교사절의 귀국 짐 속에 앉는다. 증기선이 태평양을 건넌다. 이국의 박물관에 들어간다. 그렇게 백년이 지나고 고향방문의 기회를 얻는다.’ 명성황후가 러시아 외교관에게 청자 잔을 하사하였다는 사례를 접하고 우리 미술품이 겪었음직한 인색 역정을 그려본 것이다.

〈미국, 한국 미술을 만나다〉 전시는 미국 9개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미술품을 전시했다. 처음 전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란이나 호란 같은 전쟁과 일제 강점기 때의 약탈 등, 애달픈 민족사가 먼저 떠올랐다. 역사의 희생물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를 이은 개인의 애정이 우리 미술품의 해외나들이를 가능케 한 것도 알게 되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에 기증한 「고려청자앵무무늬정병」은 동아시아 예술에 관심이 컸던 세브란스가의 소장품이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86점의 소장 역사에는 19세기 후반 조선왕실의 하사품,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의 동방순례 일환으로 일본서 구입된 경우도 있다. 가야 5~6세기 제작의 유물부터 조선후기 유물까지 이들의 탄생은 1500여 년 차이가 있다.

이른 시기 유럽에 소개된 아시아의 대표적 문화재가 도자기이듯 우리의 경우도 청자·백자·분청자가 많다. 그중에는 「청자꽃새무늬매병」과 「청자연꽃무늬주전자」같은 친숙한 형태 외에 「청자모란넝쿨무늬사각형반」처럼 현재 국내에 남아 있지 않은 시원적 형태의 유물도 있다. 사각형 모양의 판 다섯 개를 이어 붙인 상자 형태인데 옆면은 불룩하고 한쪽은 살짝 기울어진 청자이다. 물레를 돌려 만든 자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움에 태도를 매만진 도공의 손자국이 어딘가 남아있을 것 같았다. 비교적 덩치가 큰 자기인 백자 달항아리는 2점이 소개되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백자달항아리」의 굽아래는 작은 받침대가, 뒷면엔 지지대가 있었다. 달항아리는 위아래 두 반구를 이어 붙여 형태를 완성한다. 굽는 동안 기울어져서 곧 쓰러질 듯 보이지만 똑심있게 버티는 달항아리의 매력을 서구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해진다.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의 조선 18세기 「한익모 초상」은 젊을 적 모습인데 국내에는 찌푸린 표정의 노년모습 초상화만 전해진다. 두 초상화를 함께 두었다면 물리적인 노화현상 만이 아닌 판서의 자리까지 오르나 유배되기도 한 인생사의 진폭이 선명히 전해졌을 것이다. 터럭 하나 놓치지 않으며 인물 심성 표현에 치중한 조선 초상화의 사실성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기 때문이다.

- 01. 한익모 초상, 18세기 후반, 72.4x51.4cm, 브루클린박물관
- 02. 한익모 초상, 35x20cm, 국립중앙박물관
- 03. 목조동자상, 조선후기, 높이 75.6cm, 호놀룰루미술관
- 04. 목조동자상, 조선후기, 높이 41.3cm, 필라델피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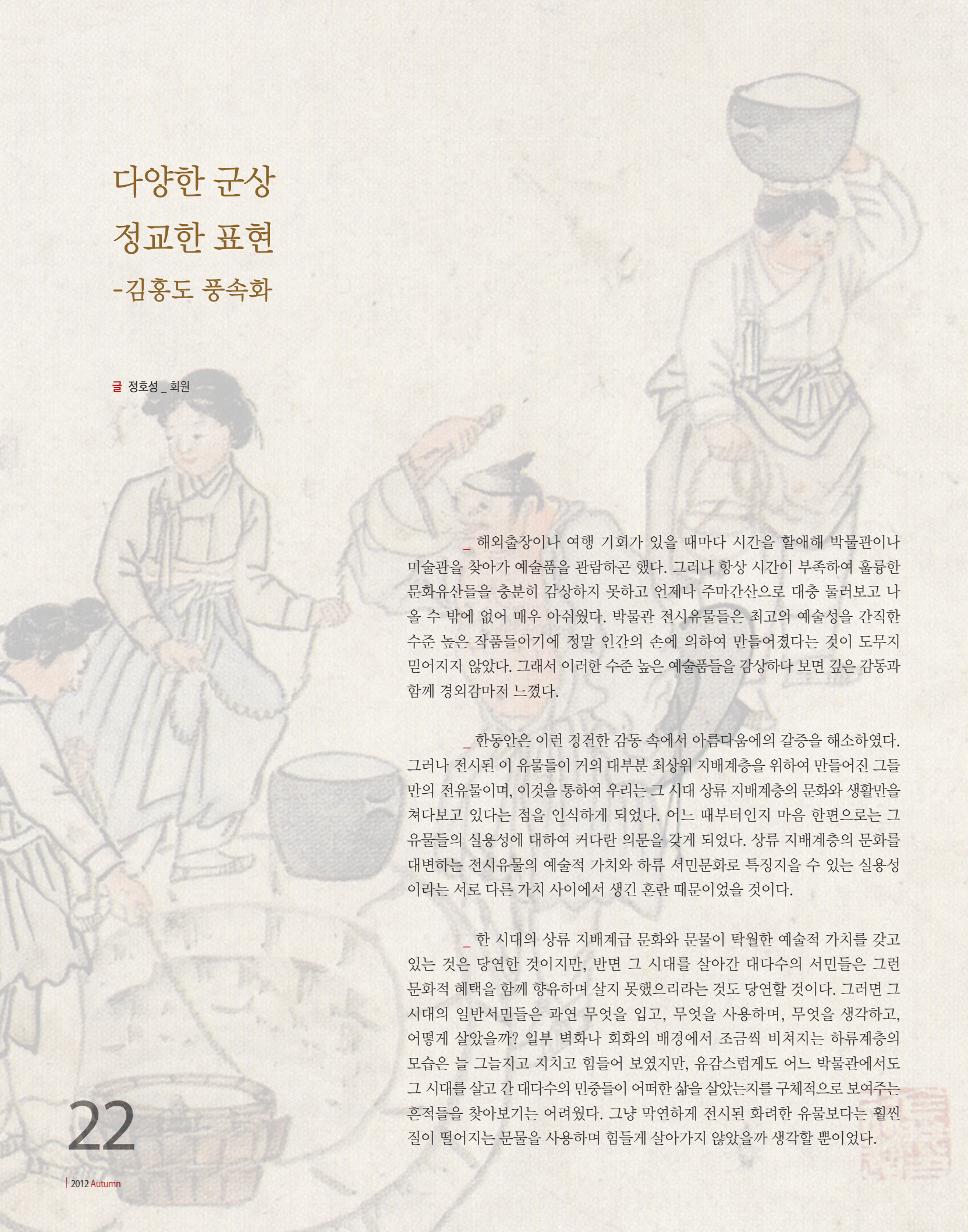
하와이는 한인 미국 이민사의 시작이어서인지 다인종·다문화에 일찍이 관심을 기울인 듯하다. 호놀룰루 미술관의 소장품은 자기에서 벗어난 다양한 종류가 특징이다. 조선불화 중 수작으로 평가된 16세기 「석가설법도」와 조선후기 「목조동자상」 모두 하와이에서 온 것이다. 사찰의 명부전에 위치하여 지옥 왕들이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책이나 붓을 들고 시중드는 것이 동자의 역할이라 한다. 길게 땅아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곱게 모은 두 손과 천진한 미소가 지옥에는 어울리지 않을 듯하다. 사월초파일에 연등을 들고 있으면 어울림직한 귀여운 모습인데, 서구인의 눈에도 그러한 듯 아시아페스티벌 같은 행사에는 마스코트로 소개된다고 한다. 호놀룰루 미술관의 동자상 보다 좀 작은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동자상은 매듭으로 한번 묶은 긴 머리에 석류와 복숭아를 들고 있다. 두 동자상을 나란히 놓으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 인간적 숨결이 느껴졌다. 금속이나 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나무만이 지닌 생명력에 어린이의 천진무구함이 잘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에서 온 조선회화 작품 「계산목우도」는 각각 2000년, 2005년 구입되었는데 하나의 그림이었다 한다. 잊어버린 반쪽을 먼 타국에서 만났던 기막힌 우연이 그림 내용보다도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번 전시의 유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시간의 목소리 속에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이 담길 수 있다. 각 유물의 의미는 단순히 제작연대를 규명하고 예술적 조형미를 평가하는 것 외에 더 있다. 한국전쟁 때에는 전시실에서 수장고로 옮겨지고 한동안 다른 나라 미술품으로 소개된 여러 곡절 속에서 만나는 역사성의 무게는 묵직하다. 박물관 규정상 한번 전시를 끝낸 유물들은 긴 휴지기를 갖는다. 미국 박물관을 찾는다 해도 한동안은 이번 전시유물과의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그러나 아쉬움만 남는 건 아니다. 긴 이별 후에 이방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문화 이정표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의 역할은 과거를 반추하는데만 있는 건 아니다. 현재의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출발점이다. 각 미술품이 지닌 우리역사의 편린들이 ‘한국미술 오천년전’ 같은 대규모 전시 속에 다시 조우하기를 바란다. <세계, 한국미술을 만나다>, 그리고 <한국, 미래의 한국을 만나다>는 진행형이다. 🇰🇷



다양한 군상 정교한 표현 -김홍도 풍속화

글 정호성_회원



해외출장이나 여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할애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가 예술품을 관람하곤 했다. 그러나 항상 시간이 부족하여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충분히 감상하지 못하고 언제나 주마간산으로 대충 둘러보고 나올 수 밖에 없어 매우 아쉬웠다. 박물관 전시유물들은 최고의 예술성을 간직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기에 정말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 높은 예술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깊은 감동과 함께 경외감마저 느꼈다.

한동안은 이런 경건한 감동 속에서 아름다움에의 갈증을 해소하였다. 그러나 전시된 이 유물들이 거의 대부분 최상위 지배계층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들만의 전유물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 상류 지배계층의 문화와 생활만을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느 때부터인지 마음 한편으로는 그 유물들의 실용성에 대하여 커다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상류 지배계층의 문화를 대변하는 전시유물의 예술적 가치와 하류 서민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실용성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 사이에서 생긴 혼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시대의 상류 지배계급 문화와 문물이 탁월한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면 그 시대를 살아간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함께 향유하며 살지 못했으리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대의 일반서민들은 과연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사용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일부 벽화나 회화의 배경에서 조금씩 비쳐지는 하류계층의 모습은 늘 그늘지고 지치고 힘들어 보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느 박물관에서도 그 시대를 살고 간 대다수의 민중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흔적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냥 막연하게 전시된 화려한 유물보다는 훨씬 질이 떨어지는 문물을 사용하며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뿐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 2층을 관람하는 중에 나의 눈을 확 끌어들인 것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였다. 얼핏 보기에 화려하고 섬세한 그림이 아닌 조금은 촌스러운 듯한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늘 궁금증을 갖고 찾던 문제, 그 시대를 살고 간 많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삶의 모습들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화첩에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기에 실제 유물과 같이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시대의 삶과 생활상이 화폭 속에 살아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시대적 기록물로서 풍속화의 가치일 것이다.

김홍도는 풍속화첩에 주로 쇠락한 양반, 다양한 서민, 하급관리, 아낙네들, 아기부터 노인까지 어디서든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하고 소탈한 서민의 다양한 삶을 집중적으로 화폭에 담았다. 이전에는 거의 그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소재들이 다양한 군상들과 함께 등장하여 순간 포착된 듯한 정지화면으로 연출되고 있다. 분명하고 남성적인 필선으로 간략하고 대범하게 스케치하듯, 가능한 채색을 배제한 수묵담채로 그렸다. 배경은 과감히 생략해 여백으로 남겨두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인물에 더욱 집중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그림의 주제에 따라 당시 서민의 노동과 생업, 놀이, 남녀간의 감정 등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려진 인물 하나하나의 마음 속 생각과 심리적인 상태, 상호간의 감정적 교류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밀한 인물묘사는 생생한 생명력과 역동적인 활력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김홍도의 천재적인 관찰력과 치밀한 표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생활과 삶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고 있는 풍경에서는 마치 우리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듯한 친숙함마저 느끼게 된다. 이는 김홍도가 치밀하고 정교한 인물표현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그려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몇 백 년의 시간 격차가 존재해도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나 인간의 본원적인 심성은 거의 똑같다는 것에 새삼 경이로움을 느낀다.

화첩 중 특히 서당, 씨름, 타작, 새참, 우물가, 길쌈, 빨래터와 같은 그림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물들은 제각기 미묘한 표정과 자세, 행동과 몸짓으로 고스란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 속에서 엄격한 신분사회의 붕괴과정이 보이고, 양반과 상민, 지주와 소작인의 불편한 관계, 남녀사이의 은근한 감정,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갈등, 노동과 수확의 기쁨 같은 서민 삶의 애환, 생활 속의 해학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김홍도가 관직까지 지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풍속화에서 당시 사회의 주류 지도이념의 허구성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사회의식까지 유추할 수 있어 놀라웠다. 🍁



바람에 끌리다

글 하영남 _ 회원

— 김영갑의 사진은 풍문으로 시작되었다. 우연히 프레스 센터의 <내가 본 이어도-용눈이 오름>전에 갔다. 수많은 오름 사이에 오래 서 있었던 기억이 또렷하다. 시원한 구도와 완만한 곡선의 풍광에 마음이 설레었다. 경주 왕릉의 반듯한 원형과 달리 자연의 숨결이 빛은 푸근한 곡선이었다. 전시실 한켠 모니터에서 작가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병색이 완연해서 제대로 목도 가누지 못하면서도 사진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저 정도로 심각했던 말인가? 생면부지의 남자 일 뿐인데, 내가 거두지 않고 팽개친 육촌 오빠라도 만난 듯 싸한 바람이 일었다.

— 그의 사진은 ‘눈앞의 풍경에 압도 된다’는 표현이 딱 맞다. 오름은 완벽할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다. 숨소리마저 멎게 하는 고요한 정적이다. ‘초월에도, 오름에도, 바다에도 영원의 생명이 존재한다. 대자연의 신비와 경외감을 느낌으로써 나는 신명과 아름다움을 얻는다. 나는 자연을 통해 풍요로운 영혼과 빛나는 영감을 얻는다.’ 그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작품이 빛나는 데는 1:3의 비율을 가진 파노라마 형식도 한몫을 한다. 제주의 지형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그는 이 수평구도를 고집했단다.

— 그는 제주 토박이가 아니다. 여느 사람처럼 불현듯 떠나고 싶은 곳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처음 3년간은 셋집 드나들듯 제주 사진을 찍다가 1985년 아예 이주를 결심한다. 혈혈단신으로 동가식서가숙을 하며 다만 그의 삶은 모두 사진에 맞추어져 있다. 필름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이 모이면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그렇게 쌓인 작품으로 거의 매년 개인전을 연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안중에 없다.

— ‘내가 사진에 붙잡아두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들판의 빛과 바람, 구름, 비, 안개이다. 최고로 황홀한 순간은 바로 사라지고 만다. 삼시간의 황홀이다.’ 아름다운 장소만을 원했다면 반드시 제주일 필요가 없다. 그를 매료시킨 것은 제주만의 독특함이었다. ‘삼시간의 황홀’이 그를 제주로 불렀을 것이다. 유난히 얽매이기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인 그는 이 변화무쌍함에 어떤 동질감을 느낀 건 아닐까?

— 압권은 바람의 표현이다. 흔히 제주를 예측불허의 섬이라고 한다. 제주의 정치판도와 날씨는 늘 예보가 맥을 추지 못한다. 그 중심에 바람이 있다. 김영갑은 기류를 읽어야 제주를 아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지극히 정적인 그의 사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이다. 잔뜩 습기를 머금은 바다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역새, 하늘을 뒤덮은 구름에도 바람이 숨어있다. 적막한 가운데 요동치는 나뭇가지가 타오르는 불꽃같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센 바람 소리가 가슴을 파고든다.

— 사진은 몸의 예술이고 현장감이 생명이다. 찰나를 찍느라 그는 시간과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 앓기 시작한지 몇 해만에 사진작가에게는 치명적인 루게릭 병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근육이 점점 퇴화해 손끝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즈음부터 갤러리를 준비한다. 2002년 개관한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2005년 5월 그는 영원 속으로 잠적한다.



— 올레길을 찾은 사람들 사이에서 김영갑갤러리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숨은 명소라는 은근한 추천을 받는다. 영원히 물의 사람인 그가 제주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갤러리는 개관보다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이만한 궤도에 오른 것은 박훈일 관장 덕분이다. 필름을 정리하고, 흩어진 지인을 모아 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꾸준한 전시와 여러 기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후원은 실천임을 보여준다.

— 두모악 입구의 정원은 미로이다. 생전의 그가 사랑한 중산간 일대의 들판을 모사했다고 한다. 비경을 쉬이 보여 줄 수 없다는 듯, 얇은 돌담길을 돌게 한다. 지금 개관 10주년 기념 <바람>전이 열리고 있다. 폐교를 개조한 갤러리는 검박하고 고즈넉하다. 마음으로 보면 삼시간의 황홀을 만날 수 있다. 삶은 순간이고 한줄기 바람 같다. 김영갑은 그 순간을 찍어 영원에 전한다. 🍁



百濟 銀花冠飾의 製作方式에 대한 一檢討

글 최기은 _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은화관식은 『周書』, 『北史』, 『隋書』 등의 중국사서 및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백제 16관등 중 제6품인 奈率 이상의 高級官人이 착용한 상징물로 평가된다. 이를 착용한 피장자는 백제의 중앙집권적 신분 질서에 편입된 지방관직 성격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地方官 또는 在地勢力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은화관식은 부여 능안골고분군 등 백제 사비기 황혈식석실분에서 10점,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의 사리공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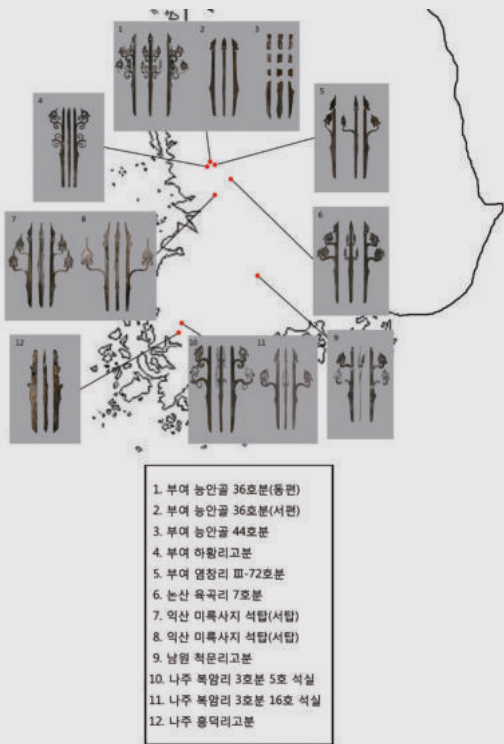


그림 1. 은화관식의 분포도

본 연구에서는 백제 사비기 황혈식석실분에서 출토된 은화관식 10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에서 실시한 계측치(각 측점 간 길이, 은판 두께 등) 결과를 통해 母本 및 제작 규정의 존재 유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현미경을 통한 유물 관찰과 형광X-선분석기를 이용한 재질분석을 통해 제작기법 및 제작공정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각 은화관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백제 사비기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관련된 衣冠制 실시 양상의 일면을 파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은화관식에 대한 제작기법 검토

1. 계측치 비교 결과

은화관식의 전체 길이는 16~20cm 내외이고, 부여 능안골 36호분 동편 및 부여 하황리 출토품과 같이 문양의 의장이 화려할수록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나주 복암리 3호분 16호 석실 출토품의 경우처럼 동일한 의장을 한 다른 은화관식보다 길이가 짧은 경우도 있다<그림 2>. 은화관식 문양의 좌우 대칭성을 판단하기 위해 1단 및 2단 화지의 화뢰 길이, 역심엽형·능형 투공 길이 등을 계측한 결과에서는 1단 및 2단 화지의 좌우 문양의 계측 결과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은화관식의 제작에 있어 종이 등의 재료를 반으로 접어 도안 작업이 선행되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림 2. 은화관식의 계측 기준

은화관식에 사용된 은판 두께는 0.2~0.8mm 내외인 것으로 출토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부여 능안골 36호분 동편 및 부여 하황리 출토품의 경우 문양의 의장이 동일하지만 은판 두께에 있어서는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부여 능안골 출토품 3점의 경우 정화 및 화지의 수에 따라 의장이 다양하지만 은판 두께가 동일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은화관식의 계측치를 비교·검토해 보면, 은화관식 중 동일 크기 및 동일 은판 두께의 유물은 1점도 없다. 이는 제작 당시 은화관식의 의장 및 대체적인 크기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母本 및 별도의 세부 제작 규정 없이 “1도안·1완성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 다양성에 대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官等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기적·지역적(매장 집단) 차이 및 장인의 제작 임의성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2. 단면 관찰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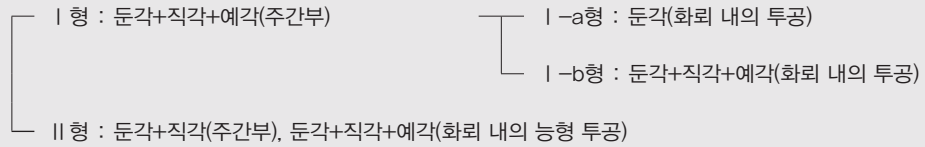
은화관식은 다른 백제 금공품과 비교했을 때 투조·연마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은화관식의 제작기법 검토 중에서 단면 관찰 및 조사는 장인의 제작 의도와 특성까지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화관식의 재단 방법은 은판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정을 이용하여 재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단면 형태는 정의 타격 각도 및 연마 각도에 따라 “직각(둔각+직각+예각)·둔각·예각·둔각+직각”으로 대별된다(그림 3).

각 유적별 은화관식은 단면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표 1). 먼저 ‘Ⅰ형’으로 주간부의 단면이 “둔각+직각+예각” 형태로 부여 능안골고분군 출토품 3점·논산 육곡리 7호분 출토품 1점·남원 척문리 출토품 1점·나주 북암리 3호분 출토품 2점이 속한다. 이 중에서 부여 능안골 36호분 동편 출토품은 화퇴 내의 투공이 연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둔각 형태이고(Ⅰ-a형), 나머지 은화관식은 화퇴 내의 투공이 둔각+직각+예각의 형태(Ⅰ-b형)인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Ⅱ형’으로 주간부의 단면은 “둔각+직각”이고 화퇴 내의 능형 투공은 “둔각+직각+예각”인 형태로서 부여 하황리 출토품 1점, 부여 염창리 Ⅲ-72호분 출토품 1점이 속한다. 이러한 단면 형태에 따른 형식 분류는 은화관식의 은판 두께와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여 능안골고분군 출토품 3점 및 나주 북암리 3호분 출토품 2점의 세부적인 단면 형태는 각 유적별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단면형태	직각 (둔각+직각+예각)	둔각	예각	둔각+ 직각
모식도				

그림 3. 은화관식의 단면 형태 모식도

표 1. 은화관식의 단면 형태에 따른 형식 분류



3. 재질분석 비교 결과

은화관식 제작에 사용된 은의 재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이동형 형광X-선분석기를 이용하여 비파괴 재질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은화관식의 화학조성은 Ag 97.20~99.91% · Au 0.04~2.71% · Cu 0.02~0.35% 함유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크게 은의 순도가 99% 이상인 그룹(부여 능안골 36호분 동편 출토품 등 8점)과 은의 순도가 99% 이하인 그룹(부여 능산리 44호분 및 나주 복암리 3호분 5호 석실 출토품)으로 대별된다.

다수의 은화관식은 99% 이상의 고순도 은을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일부 은화관식에서 소량의 금 성분이 검출된다는 점은 제작과정 중 필요에 의한 인위적인 첨가가 아닌 “에렉트럼(electrum, Au-Ag계 광물)의 製鍊·精鍊度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Ⅲ. 은화관식의 제작공정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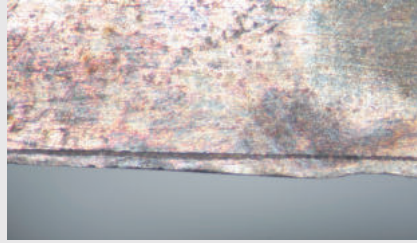
은화관식에 대한 단면 관찰 결과 및 재질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제작공정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은화관식의 제작에 있어 은 소재의 획득 및 延板 작업과 더불어 문양 도안 작업이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 문양 도안과 관련하여 은화관식의 외면 또는 내면에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선각한 침선의 밑그림이 관찰된다(그림 4). 이러한 밑그림은 은화관식 제작 시 은판의 정질 및 단면 연마를 거치면서 대부분 없어짐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은화관식에서 밑그림이 관찰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모든 은화관식은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봐야 타당할 것이다.

은화관식의 문양 도안·은판 제작 및 밑그림 작업 등 일련의 준비 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은판을 재단하게 된다. 은판의 재단 방법은 은판 두께와 상관없이 다양한 정을 이용하여 투조기법으로 재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판이 얇은 부여 능안골 36호분 동편 출토품·남원 척문리 출토품 등의 정화내 투공 및 화좌 부분에는 정의 형태와 똑까지 기능할 수 있는 정질 흔적이 명확히 관찰된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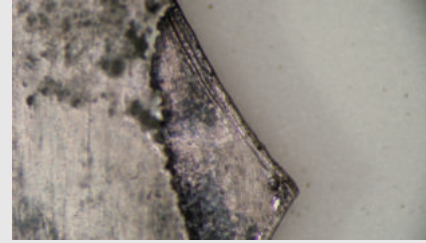
은화관식의 재단을 위한 정질 후에는 그 단면에 대한 연마 작업이 수행되는데, 줄칼 등의 금속 도구로 연마한 후 가죽 등으로 미세 연마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마 과정은 정질 부분에 대한 단면 연마를 실시한 후, 그 모서리의 외면 또는 외·내면을 둔각으로 연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림 6).

이와 같이 정질과 단면 연마가 완료된 평면적인 은화관식은 각접기를 위한 중심분할선을 그 내면에 구획하는데, 구획 방법은 송곳 등으로 선각한 후 다양한 정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산 육곡리 7호분 출토품의 경우처럼 그 중심분할선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실험고고학적인 복원품과도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7). 그리고 마지막 제작과정으로 표면 광택도를 높이기 위해 은화관식의 외면은 미세 연마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은화관식의 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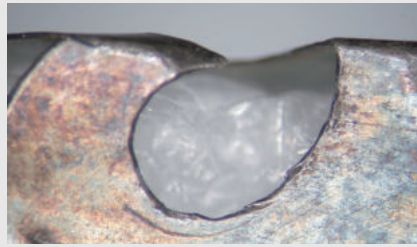


①주간부 외면 밀그림(부여 능안골 36호분 동편 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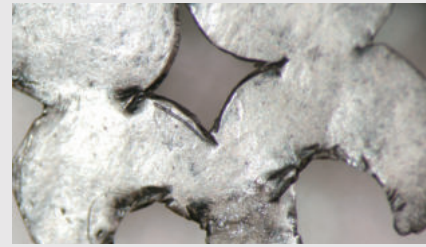


②첨부 내면 밀그림(남원 척문리 출토품)

그림 5. 은화관식의 은판 재단 및 복원품 비교



①정화 정질 흔적(부여 능안골 36호분 동편 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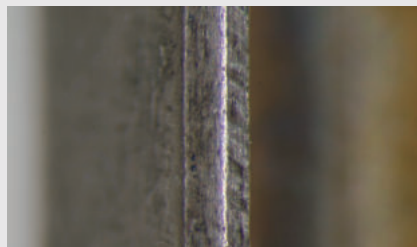
②화뢰 정질 흔적(남원 척문리 출토품)



③정의 정면 및 은판 정질 흔적 복원(정광용 외, 2008)



그림 6. 은화관식의 단면 연마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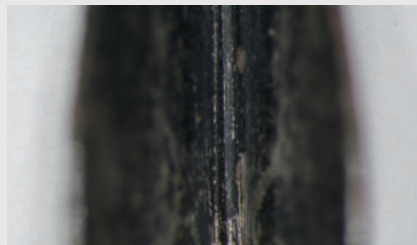


①주간부 단면 연마(부여 염창리Ⅲ-72호분 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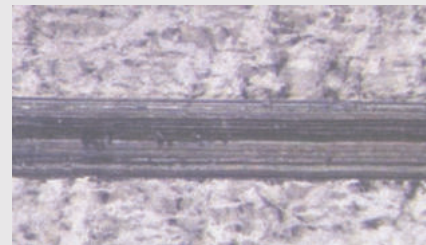


②주간부 및 화지 단면 연마(논산 옥곡리 7호분 출토품)

그림 7. 은화관식의 내면 중심분할선 및 복원품 비교



①정화부 내면 중심분할선(논산 옥곡리 7호분 출토품)




②각접기를 위한 중심분할선 복원(정광용 외, 2008)

IV. 맺음말

백제 사비기 황혈식석실분에서 출토된 은화관식 10점에 대해 제작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은화관식의 계측치를 비교한 결과, 동일 크기 및 동일 은판 두께의 유물은 1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작 당시 은화관식의 의장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母本 및 세부 규정 없이 “1도안·1완성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단면 형태를 비교한 결과, 은화관식은 대체적으로 재단을 위한 정질 후에는 단면 또는 단면 모서리 끝을 “둔각+직각” 또는 “둔각+직각+예각”의 형태로 연마하였으며, 단면 형태는 각 유적 출토품별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은화관식은 99% 이상의 은에 금이 소량 함유된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 아닌 “에렉트럼의 製鍊·精鍊度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작기법 조사·검토를 바탕으로 은화관식의 제작공정을 유추해 보면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은 소재의 획득(에렉트럼의 채광·선광·제련·정련)·은판의 제작 및 문양 도안 → ②밀그림 작업(도안된 종이 등을 이용하여 은판의 내·외면에 선각) → ③정을 이용한 은판 재단(정을 이용한 투조) → ④단면 연마(줄갈·가죽 등 연마 도구를 이용) → ⑤중심분할선 구획 및 각접기(송곳·정 등 이용) → ⑥표면 연마 및 마무리(가죽 등 이용)

백제 은화관식은 官等の 차이에 따라 그 문양 의장이 차이남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백제 사비기에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官人의 色服에 대한 규정 등 衣冠制가 정립되었음에도 은화관식의 제작에 있어 고도의 정형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향후 은화관식의 출토가 기대되는 바, 본 연구의 세부 제작기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鐵製冠心과의 조합 관계·帶金具 등 공반유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한 진전된 후고를 기약한다. 

| 이오희 _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이 논문은 고고학과 보존과학 지식이 하나가 되어 완성된 참신한 연구로 보인다. 백제 은화관식의 제작방식 조사에서 10점의 은화관식에 대해 계측치 비교, 단면 관찰 비교, 재질분석 비교, 실체현미경 관찰 등을 통해 고대 은화관식의 제작기법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제작기법에 있어 10점 모두 모본이 없이 1도안 1완성품으로 제작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지방 박물관 보존실의 사정상 분석조사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고고학적 계측법과 분석조사로 은화관식 제작기법 공정을 유추하였으며 세부제작 기법조사는 연구자의 세밀함이 돋보이는 논문으로 학술적 자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 안병찬 _ 경주대학교 교수

보존과학의 역할은 실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육안만으로는 불가능한 고대 재료와 제작기술, 제작과정 등의 고급 정보를 찾아내 제공하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백제시대 은화관식 10점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 발표한 이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높다. 관식의 과학적 조사를 위해 우선 고고학적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조사와 분석을 꼼꼼하게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박물관 특설강좌

- 그 화려한 외출

우리회는 1977년부터 박물관 특설강좌를 개설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미술사학, 건축사, 사상사, 박물관학 등 전통문화 전반에 관한 강좌를 기본으로 전시실 교육과 고적 답사 등이 병행된다. 특설강좌 수료 후 연구강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 그동안 수강생들이 제출한 레포트에서 강좌에 대한 후기를 발췌해서 모았다.



지난해 나는 30년 몸담았던 학교를 떠났다. 언젠가 학교를 떠나 온종일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박물관 특설강좌를 듣는 일이었다. 즐겁게 듣고 돌아오는 시간은 뭔가 큰일을 한 듯 나 자신이 뿌듯하고 배우는 즐거움에 상쾌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국사교사로서의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이 강의를 듣고 또 박물관을 자주 다니면서 교사생활을 했다면 좀 더 좋은 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수강생 서혜련)

젊었을 때 같이 치열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살아온 세월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지고, 마음도 넓어진 중년 이후가 인문학을 배우기에 좋은 때라 위로하고 용기를 줘가며 박물관 특설강좌를 시작했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문화, 우리역사에 대한 애정도 조금씩 더 생겨나기 시작했다. 혼자서 전시실을 가면 10분도 안 걸려서 나왔을 텐데 전시실교육을 듣고 강의를 들으니 다른 수업시간보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훨씬 만족도가 높았다. (수강생 유금숙)



기대와 설렘으로 박물관에 도착하여 특설강좌에 등록하고 돌아서는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박물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강좌를 들으면서 자칭 박물관 홍보대사가 되었다. 특별전시 등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 내용을 나눌 때 난 가장 행복하다. 누군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박물관에 가서 고고학 공부해요." 한다. 한 강좌, 한 강좌 모두 기대와 설렘으로 들었고 교수님들의 열정에 감사한다. (수강생 임소레)



고대의 지난 자취를 배우며 과거의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을 쫓아보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 이런 문화를 배우며 현재 내가 속한 이 시대 역시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잘 활용해 후세들이 별 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나에게 박물관 특설강좌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주는 길잡이였다. (수강생 지기순)



나이가 들면서 우리문화를 알고 싶다는 갈급한 마음이 생길 무렵 친구의 권유로 특설강좌에 등록하였다. 우리문화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장기간, 체계적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두렵기도 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점차 미술작품에서 미술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역사까지도 찾아

낼 수 있는 눈을 배웠다. 앞으로 유물을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결론을 끄집어 낼 수 있을지를 알게 되었다. (수강생 이미란)

강좌를 신청하고 일주일에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무지하기만 했던 나의 눈이 떠지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중국의 궁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의 궁궐이 초라하다고 느꼈던 나의 무지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이제는 크고 작음의 비교가 아닌 고유의 소중한 문화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배웠다. 깨어진 기왓장, 작은 파편 조각에서도 그 시대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강생 박광례)

나름대로 설 새 없이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또 배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 등록하게 되었다. 교수님들의 진지하고 수준 높은 강의와 적극적으로 열심히 경청하는 회원들의 열기를 느꼈다. 과거에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만 보았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강의를 듣거나 박물관의 유물 앞에 설 때 나 자신이 그 시대, 그 곳, 그 인물이 되어 보기도 하고,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간적인 모든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수강생 박문자)

전공이 자연과학인 나는 인문학 강의를 매우 낯설었다. 예전에는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만이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인생을 논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인문학에 대한 끌림은 어쩔 수 없었다.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한 나의 박물관 특설강좌는 화려한 외출이 되었고 일상의 활력소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강좌를 들으며 단지 화려한 일상의 외출에 그치지 않고 옛 것을 보는 마음의 눈을 배워갔으며, 유물을 보고 가슴이 멎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수강생 최성주)

나도 문화와 역사를 즐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 심정이랄까.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있지만 나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학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웠다.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한주에 한번 씩 박물관으로 향할 때 마다 마음이 뛰었다. 흥미로운 해석과 명쾌한 분석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주었다. 수업 후에 집에 돌아갈 때 내 마음엔 늘 혼자만의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수강생 한선숙)



왕과 왕실의 서예(서화관 서예실)



「순조어필」, 1795, 해서

6살 원자 때 쓴 글로 천진함이 한껏 드러나 있다.
큰 붓으로 시원하게 쓴 대담한 필치는
일국의 왕이 될 제목임을 웅변해 준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兪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長 | 金正泰
 副會長 | 申聖秀 洪錫肇
 理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成弼鎬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監事 | 金義炯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하나은행 | 金正泰
 千信一 |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 소장가
 尹章燮 |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 申憲澈
 尹碩敏 |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兪相玉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 朴炳燁
 (주)한섬 | 鄭在鳳
 (주)STX | 姜德壽
 朴容允 |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 Actium 부회장
 庚園 | 광제사 주지
 鄭溶鎮 |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 갤러리현대 부사장
 朴殷寬 | (주)시몬스 회장
 申聖秀 |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 (주)BGF리테일 회장
 李垞炅 | 휴빅 대표

은관회원

柳昌宗 |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 (주)종합전기대표
 成弼鎬 |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 (주)풍산주택회장
 南秀淨 | (주)전앳푸드 대표
 許榕秀 | (주)GS홀딩스 전무
 金寧明 | (재)예울 이사

趙顯相 | 효성그룹 부사장
 최철원 | M&M(주) 사장
 洪政旭 | (주)헤드미디어 회장
 金信韓 | 대성 부사장
 金承謙 | (주)서릉통상 전무
 李明姬 | 일우재단 이사장
 姜院基 | 오리온 대표
 李圭植 | 경신금융 대표
 尹在倫 | 서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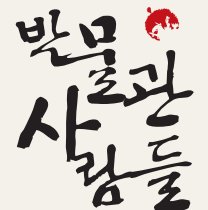
청자회원

金芝延 | (주)컨셉 대표
 申硯均 | 아름답기 이사장
 朴仙卿 |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域 |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 OCI 부사장
 李宇鉉 |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金性完 |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 변오하
 金榮秀 | 호성호업회장
 胡鍾一 |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慎昌宰 |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雲卿 |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 삼표산업
 李美淑 |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 열화당 대표
 李起雄 |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永茂 | 국립중앙박물관회사무국장
 辛炳讚 |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 서양화가
 李鈴子 | 柳徹浩
 朴海春 | (주)화승 부회장
 金宗學 | 동훈디앤아이 대표
 한국도로공사 | (재)예울 이사장
 玄智皓 | (주)NXC 대표이사
 金南延 | (주)비상교육 대표
 金寧慈 |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金正宙 | 현대자동차 부회장
 梁汰會 | 회원·자원봉사
 丁恩美 | 고려상사(주) 부회장
 鄭義宣 | 홍익미술관
 鄭惠玉 | 崔世勳
 崔世勳 | 朴世昌
 崔杜準 | 李海珍
 金澤辰 | 李善眞
 洪誠杓 | 洋賢財團
 崔世勳 | 薛允碩
 李英純 | 李教祥
 朴正遠 | 金載烈
 李海珍 | 金仁順
 金澤辰 | 梁洪碩

서양화가 | 柳徹浩
 (주)화승 부회장 | 동훈디앤아이 대표
 (재)예울 이사장 | (주)NXC 대표이사
 (주)비상교육 대표 |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 회원·자원봉사
 고려상사(주) 부회장 | 홍익미술관
 崔世勳 | 朴世昌
 崔杜準 | 李海珍
 金澤辰 | 李善眞
 洪誠杓 | 洋賢財團
 崔世勳 | 薛允碩
 李英純 | 李教祥
 朴正遠 | 金載烈
 李海珍 | 金仁順
 金澤辰 | 梁洪碩

대한전선 부회장 | 한국미술협회회원
 재미교포 |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대진증권(주) 부사장

朴禎原 | 두산산업차량(주) 부사장
 朴知原 | 두산중공업 부회장
 曹在顯 |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 (주)KPE 전무
 金世淵 |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允炫 | 성신양회(주) 부사장
 Joseph Bae | KKR Asia 대표
 具本商 | LIG 넥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 대신제분(주) 상무
 金裕錫 | 행남자기대표이사총괄사장
 咸泳俊 | (주)오뚜기 회장
 金載勳 |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 (주)금비 사장
 尹賢慶 |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 회원
 吳勝敏 | 동일산업(주) 부사장
 許允秀 | (주)AITO·(주)AITK 부사장
 兪承熹 | 코리아나화장박물관부관장
 李幸旭 | (주)대주기공 사장
 李萬圭 |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 광주요그룹 이사
 朴宣注 | 영은미술관 관장
 尹寬 |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 한미약품 상무이사
 柳智勳 | 영남제분 부사장
 李濬宇 | 흥아해운 상무
 楊仁集 | 진로재팬 대표
 尹勝鉉 | (주)뉴라이트전자대표이사
 吳治勳 | 대한제강 부사장
 李學俊 |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 변호사
 金性南 |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英姬 | 강좌 수료생
 金京姬 |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 유금외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 SK 부회장
 李甲宰 |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 한국석유그룹 사장
 全裁範 | 금강공업 부사장
 金斗植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 영원무역 이사
 成來恩 | 매경미디어그룹 상무이사
 張升準 | 이테크건설 상무
 李宇成 | GS건설 상무
 許允煥 | 근화제약 대표
 張仁宇 | 신원 부회장
 朴廷彬 | LS-Nikko 동체련 이사
 具本赫 | 학교재 대표
 禹燦奎 | 회원
 徐東姬 |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教台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